

시간 벌며 꼼수 쓰는 이명박

촛불은 더 커져야 한다

촛불문화제에 함께합시다

거의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후 일정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웹사이트(<http://www.antimadcow.org>)를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의 거듭되는 말바꾸기, 거짓말, 우기기 등이 사람들의 분노를 돋우고 있다. 여기에 "치명적 실수" 또는 "치명적 거짓말"까지 폭로됐다. 온 국민을 영어 몰입 교육으로 몰아넣으려던 '어린쥐' 정권이 영어 해석을 잘못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지지율은 심지

어 한 조사에서는 17.6퍼센트로 나왔다. 거의 통치 불가능 수준이다. 미친듯이 이명박을 옹호하던 조중동마저 '협상에 문제가 있었다'며 슬슬 발을 빼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우파인 이회창과 박근혜조차 등을 돌린 지 오래고 한나라당과 정부 내에서도 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도 '정책연대 철회'를 언급

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파업'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안 고시(장관고시)를 일단 연기했다. 그러나 기껏해야 며칠 숨 돌리며 김빼기를 한 후에 다시 고시를 강행할 듯하다. 국민의 80퍼센트가 넘는 반대 의사를 거스르려는 것이다. 이명

박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공포감과 불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미국 육류업자들과 대한민국 1퍼센트 특권층 — 특히, 삼성·LG·CJ 같은 유통재벌 — 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쯤은 간단히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 3면으로 이어짐

미친 소와 이명박 OUT 투쟁

— 이명박 탄핵 고시로 맞서자
— 더 크고 넓게 번져 가는 촛불
— 노동계급이 열쇠를 쥐고 있다
3, 6~7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인터뷰

12면

사회 진보를 이끈 청소년 투쟁의 역사

4~5면

'88만 원 세대' 대학생의 삶

— 뻥뻥한 일상, 숨 막히는 경쟁
8면



중국의 지진 대재앙의 진실

9면

이스라엘 - 제국주의의 사냥개

9면

이명박의 미친 전쟁 지원 정책

5면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맞불> 온라인 기사

버마 사이클론 이후
버마 군부나 세방 정부는 버마 민중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팔레스타인을 억압해 온 이스라엘 국가 건설 60년을 맞아 진정한 해방을 위한 방안과 투쟁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본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값싸고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쇠고기를 수입해서 서민과 중산층도 쇠고기를 먹게 해주는 게 국민 복지 아니냐?”

－〈중앙일보〉논설위원 김진

“한마디로 너무 나쁜 결과다. … MB의 시련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5년이 격정이다.”

－〈조선일보〉김대중의 한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총련 …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을 흑세무민하고 있다. 이들은 주사파들의 연합”

－ 한나라당 차명진의 색깔론

“일부 세력이 벌이는 ‘광우병 공포 세뇌’는 북한의 선전선동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동아일보〉의 색깔론

“정부브리핑을 한 번 더 하기 바란다. 단 이번에는 식당에서 30개월이 넘는 미국산 소로 만든 곱창과 사골국물을 마시면 서, … [조중동] 논설위원들도 꼭 함께 부르기 바란다.”

－ 단국대 의대 권호장 교수

“미국 소들이 해업을 쳐서 태평양을 걷고 걸어서 서울로 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멈추면 국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 정호희 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공무원을 ‘광우병 마루타’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만일 실제 이런 내용이 실행될 경우 공무원 노조는 ‘광우병 구내식당 거부운동’을 시작하고 장관들의 구내식당 이용여부를 매일 조사해 공개할 것”

－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하겠다는 정부에 반발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조류 인플루엔자에도 무대책인 이명박 정부

조류 인플루엔자(AI)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재래시장 탓만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몇 년 전부터 제기돼 온 AI 공포에 어떤 대비도 하지 않았다.

조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는 현재 11만 건에 육박하는 AI 시료가 들어왔지만 전담 상시 연구원은 1명밖에 없다. 지난 2월 이명박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턱없이 부족하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력이 34명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조류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AI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질병관리본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사람의 혈액 샘플이 하루 수십 건씩 들어오지만 담당 연구사는 3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사람의 감염 확진은 의심 사례 발생

살처분을 앞둔 오리. 국민들도 공포에 떨고 있다

후 두 달 가량 걸린다.

2008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신종전염병 대책 예산안은 지난해에 비해 23퍼센트나 감소했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 지원 예

산은 작년 대비 32.7퍼센트나 감소해 46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신문에 홍보하기 위해 10억

‘사회악’인 한국의 부자 정치인들

한국의 정치인들은 너무나 부자다. 1인당 GNP가 약 2.5대 1인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정치인들의 재산을 한번 비교해 본다.

워싱턴에 있는 ‘책임정치센터’(CRP, <http://opensecrets.org>) 조사를 보면, 연방 상원 의원들의 평균 순자산은 2004~2006년도에 어림잡아 17억 원(1백70만 달러)이었다. 같은 기간 하원 의원들의 평균 자산은 이보다 훨씬 적은 6억7천5백만 원(67만5천 달

러)이었다.

지난 3월 28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17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한나라당 의원 정몽준(3조 6천44억 원)을 포함하면 약 1백43억 원, 빼면 22억 원이었다. 미하원 의원들 평균 재산의 세 배를 훨씬 넘고, 부호의 전당인 상원 의원들보다 더 많다.

두 나라 대통령 재산 상태를 보면, 이명박이 약 3백54억 원, 부

시가 많이 잡아 2백60억 원(2004년)이다.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중앙 부처 상위 10명은 68억~2백23억 원에 이르고, 지방 자치 단체장 상위 10위권은 78억~2백58억 원이다. 이명박 정부 새 장관들의 평균 재산은 39억 원에 이른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그들의 재산은 부동산과 증권에 투자·투기를 해서 얻은 불

원이나 낭비했다.

AI 치료제인 타미플루 보유량을 1백25만 개에서 2백50만 개(국민의 5퍼센트)까지 늘린다고 하지만, 이미 스위스는 국민의 25퍼센트, 일본도 국민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타미플루를 보유하고 있다.

예방백신은 아예 비축해 둔 것이 없고 올해 안으로 기껏해야 4만 개를 확보한다고 한다. 스위스는 전 국민이 모두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비축해 두고 있고, 일본은 1천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말이다. 지난해에 감사원조차 AI로 사망자가 5만 4천명 생길 수 있고 입원 환자가 23만 명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명박은 국민의 건강에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강철구

로소득이 아닌가? 전체 국부(國富)에서 “국민의 머슴”이 너무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해서 그들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역 구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인도의 간디는 일찍이 “자기 이마에 땀 없이 얻는 부”를 5대 사회악의 하나로 꼽았다. 로마 교황청이 최근 발표한 ‘신(新) 7대 죄악’ 중엔 “소수의 과도한 축재로 인한 사회적 불공정”이 들어 있다. 간디와 교황이 보기에 이들은 모두가 사회악을 범한 자들인 셈이다.

장동만

돈벌이에 눈이 먼 대학들

대학 당국들이 쌓아 놓은 재단 적립금 6조 원이면 등록금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신용을 모두 회복할 수 있고 대학생 절반이 1년 동안 무상으로 대학에 다닐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이 개정돼, 각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대학의 연구성과를 상품화하는 회사)를 설립해 적극적으로 돈벌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강대 총장 손병두는 ‘씨앗’이라는 산학협력그룹을 만들어 학생·교수들이 “기업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이용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이공계와 경영대를 중심으로 자본금 규모가 1천억 원이 넘는 국내 최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정말 돈을 잘 벌 수 있는 회사를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국립대학들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대는 ‘SNU홀딩스’라는 지주회사 설립추진단을 조직해 전 현대상선 사장,

전 정보통신부 장관 진대제, 전 경제부총리 권오규 등 재계와 정·관계 인사 10여 명의 고문단까지 갖췄다.

이처럼 대학이 이윤 추구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돈 되는 학문에만 투자하게 될 것이다. 한술 더 떠 동국대는 입학 경쟁률, 졸업생 취업률 등으로 매년 학과를 평가해 경쟁력 없는 학과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대학 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등록금 인하나 교육 여건 개선이 아니라 대학 당국의 배불리기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가 지난해 말에 대학발전기금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보듯 금융시장은 매우 불안정하기에 학생들의 등록금과 연구 성과로 모은 돈이 한 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

각 대학들이 부당하게 쌓아 놓은 적립금은 모두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학 당국들의 맹목적 이윤추구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강영만

이주노조 토르나 위원장의 편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싸워 주세요”



5월 2일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조 토르나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을 불법·폭력 연행했다. 출입국보호소에서 단식 투쟁중인 토르나 위원장이 〈맛불〉 독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축약해 실는다. 이 편지의 전문과 토르나·소부르의 인터뷰는 〈맛불〉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한국은 인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것 같다. 이주노동자를 잡아 가두고 표적 단속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인플루엔자 말이다. 이곳에서 강제 퇴거 명령서를 읽었을 때 무척이나 모욕적이었다. 한국 정부는 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다. 씁쓸한 일이다.

이곳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다. 보호소나 감옥은 갇혀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사기를 꺾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보호소에서 TV를 봤는데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한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은 다루지 않는다.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오래 체류하고 일했던 사람들이 문제고 범죄를 일으키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한다. 억울하고 모욕적인

일이다.

얼마 전 중국 유학생들의 난동 사건 뒤 이곳에 중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매우 많이 잡혀 들어온다. 왜 아무 상관이 없는 중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잡아 가두고 있는가.

내가 비록 네팔로 강제출국 되더라도 계속해서 국제적 연대를 이어 나갔으면 한다. [〈맛불〉 독자들도] 이제까지처럼 헌신적으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싸웠으면 좋겠다.

“우리, 같은 사람, 같은 권리, 같은 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합법화!
인권 보장! 을 위한
이주노동자결의대회
5월25일(일) 오후2시
서울도심(추후공지)

장관 고시는 이명박 탄핵 고시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 1면에서 이어짐

안 그래도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영어 ‘몰입’ 교육, 건강보험 무력화 같은 공공서비스 사유화 등으로 커다란 불신을 받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여기에 불신 항목 하나를 추가한 것이고, 이 문제를 계기로 대중 행동이 폭발했다.

식품 안전 문제는 기업 세계화 반대 운동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다수 사람들의 건강이 무차별적으로 위협당할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한 공포이기 때문이다. 2000년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기업 세계화 반대 운동(대안세계화 운동이라고도 부르는)도 그 시작은 맥도날드 같은 다국적 식품 기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반대였다.

복수

7~10일 후라도 정부가 장관고시를 한다면 분노에 찬 대중 행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장관고시는 반이명박 정서라는 “기름발 위에” 던져질 성냥불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이명박 탄핵” 요구가 시위 참가자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고 있다. 2004년 한나라당의 반동적 탄핵 시도에 대한 대중의 멋진 복수이자, 반이명박 정서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 주는 징표이다.

지난 주부터 촛불시위를 이끌고 있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이번 주에는 날마다 집회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자 대중의 요구에 대한 민주적 반응이다.

지금 대중 행동의 폭발에 이명박 정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명박의 정치적 상표처럼 돼 있던 이른바 “추진력”은 이미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



‘특정위험물질’ 이명박을 제거하기 위해 시위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했다. 대중적 항의에 직면해 한반도 대운하와 영어 ‘몰입’ 교육 계획은 좌충우돌과 오락가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1퍼센트 특권층만을 위한 이명박의 친기업적 “추진력”에 확

실하게 제동을 걸자.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시위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면, 더 많은 대중 행동이 일어날 다면 장관고시는 이명박 정부 탄핵 고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아니라 대중 행동에 의존해야

민주당이 대중의 반이명박·한나라당 정서로부터 이득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 달려 가고 있는 길을 닦은 장본인이다. 집권 10년 동안 민주당이 닦은 길은,

- 한미FTA 타결을 위해 미국 쇠고기 수입 결정
- 고등학생들을 미쳐 버리게 만드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수능, 내신, 논술) 설치
- 대학 등록금 두 배 인상
-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한국 군대 파병
- 비정규직을 5백만 명에서 9백만 명으로 늘리기 등등.

지난 10년의 경험은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맞서 진보적 개혁을 추진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수소에 젖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무망한 일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현실성’과 ‘단계적 접근’을 내세워 민주당에 의존하거나 민주당과 협력해서 이명박에 맞서자는 일부의 주장은 위험한 것이다. 이런 관점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당에 청원하거나 압력 넣기식 집회를 하자는 주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2004년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 입법 투쟁 때도 민주당(당시 열우당)은 대중 행동을 민주당에 압력넣기로 제한하던 사람들을 철저히 배신한 바 있다.

근본적으로 재벌과 자본가들에게 계급적 기반을 둔 민주당은 일관되게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반대할 수 없다. 따라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로 결집한 반(反)이명박 운동 진영은 지금의 대중 행동을 더욱 크고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것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

더구나, 고시를 연기한 이명박은 시간을 벌며 탄압과 책략을 통해 운동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의 책략과 탄압에 맞서며 대중 행동 지속과 확대에 주력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조직 노동자들의 동참이 중요하다

대선과 총선 결과로 인해 반동의 위험을 느끼는 바로 그 상황에서 새 세대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저항을 시작했다.

마치 프랑스의 1968년 5월 반란을 기존 조직 좌파의 바깥에서 급진화한 새로운 물결이 주도했던 것을 연상케 한다. 이들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과 당시 드골 정권의 권위주의, 대학의 보수성에 반발해 급진화했다.

지금 이 운동이 다른 운동과 구별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대중의 총명한 자생성이다. 집회 내내 끊이지 않는 자유발언은 한 사례일 뿐이다.

젊은 시위 참가자들이 주류 언론의 거짓 선전을 반박하기 위해 들고 나온

손팻말 등은 재기발랄한 언어로 가득 차 있다. 촛불시위를 뒤덮고 있는 구호들은 운동의 정신을 재치 있게 포착해 내거나 정부와 사회 특권층을 반어적으로 비꼬고 있다.

이들의 급진화 속도와 깊이는 신자유주의가 불가항력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서 새로운 세대의 급진화와 정치적 등장을 촉진시켰음도 보여 준다.

그런 점에서 이 운동은 2002년 미군의 효순이·미선이 살해 항의 운동과 유사하다. 그 운동도 새 세대 청년의 정치적 각성과 함께 새로운 특징들을 보여 줬는데, 특히 자생성이 총명했다.

그러나 2008년은 2002년과 다른 특

징도 보여 준다. 2002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정당 거부 정서였다. 물론 한나라당 같은 보수 정당들을 거부하는 것은 옳았다. 그러나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정당(과 좌파 단체)도 거부했다.

자생성

반면, 2008년 촛불시위 참가자들에게서는 정당 거부 정서가 느껴지지 않는다. 한 예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촛불시위 참가자들로부터 대단한 지지를 받았다.

이런 새 세대의 자생적 반란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조직 노동자들이

이 운동에 집단적 연대를 보내야 한다.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단체로서, 계급으로서 이 운동에 참가해야 한다. 운수노조는 자신들의 즉각적 요구인 기름값 인하에 미친 소 운송 저지를 결합함으로써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다행히 민주노총 지도부는 13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폭발 직전”이라며 “파업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16일 확정하겠다”고 했다. 금속노조 지도부도 “파업을 결정할 경우 금속노조는 적극적으로 복무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민주노총이 그런 강력한 투쟁을 결정하고, 지금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유화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 운동에 동참한다면 운동은 새로운 질적 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맞불〉 지지자들은 노력해야 한다.

한국 역사를 이끌어 온

청소년 투쟁의 전통

한규한

청소년들의 저항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1997년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세대들이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명예퇴직, 비정규직화가 이들의 부모를 강타했지만 부자들은 그동안 더욱 배를 불렀다.

신자유주의는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했다. 입시지옥 속에 학생들은 다크써클에 떨어졌지만, 그렇게 한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모순과 억압에 찌들어 있던 청소년들의 저항이 폭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청소년들은 사회의 모순과 불의에 저항해 온 전통이 있다. 1960년 4·19 혁명 직후 일본〈외교시보〉는 이렇게 적었다.

“[4·19에서] 고등학생의 활약이 눈부셨던 것은 한국 사회의 특질에 뿌리박은 역사에 유래하는 것 … 일본의 통치시대부터 민족운동, 사회운동에 있어서 때때로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당시의 고등보통학교 학생이었다.”

일제시대 고등보통학교는 각종 민족해방·사회주의 이념 씨클들의 온상이었고, 1929년 광주 고등학생들이 촉발한 운동은 6·10 만세 운동과 더불어 3·1 운동 이래 가장 큰 대중항쟁으로 발전했다.

1960년 4·19 혁명의 불을 댕긴 것도 고등학생들이었다. 당시 이승만은 3월 15일 예정된 선거에서 대규모 선거 부정을 계획해 독재를 연장하려 했다. 이에 항의해 2월 28일 대구고, 경북고 등의 학생 8백여 명이 등교를 거부하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행동에 자신감을 얻은 고등학생들이 마산, 서울, 대전, 청주, 부산 등 각지에서 공명선거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조금씩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4·19 혁명

현재 이명박의 미친 소 옹호론만큼이나 당시 이승만의 선거 조작은 한편의 블랙코미디였다. 이승만은 군부대에서 유권자 수에 1백20퍼센트나 되는 표를 얻었다!

결국 고등학생들의 분노가 3월 15일 마산에서 폭발했다.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이에 더욱 분노한 학생·노동자 들은 여당 사무실, 경찰서를 공격했다. 서울의 고등학생들은 “마산 동포 구출하자” 하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4월 11일 마산상고의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시신으로 발견되자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수많은 하층 노동자들이 거리의 전투에 가세했다. 4월 18일에는 서울의 대학생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4월 19일 혁명으로 발전했다. 지배자들의 어처구니없는 태도는 옛날에도 비슷했다. 이승만은 “이 난동에는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 “영향력을 넓히려는 천주교의 공작”이라고 했다. 그러나 별거벗은 임금님 노릇하던 이승만은 결국 퇴진했다. 이승만이 ‘탄핵’되던 그날 10대들은 이승만 동상을 쓰러뜨리고 줄에 묶어 끌고 다니는 것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했다.

1980년 광주항쟁에서도 고등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광주항쟁을 잘 기록한 소설가 황석영 씨는 당시 고등학생들의 저항을 이렇게 서술한다. “고등학생들은 방과 후에 20~30명씩 짝을 지어 시위대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10대 특유의 열정 때문인지, 무수한 희생을 내면서도 자신들의 몸 전부를 아무 두려움 없이 공수부대의 폭격 전면에 내던졌다. 고등학교 학생의 희생은 가장 컸으며 그들의 싸움은 시민들 가슴 속에 잠재돼 있던 공포를 모두 날아가게 해 주었고, 한편으로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했다.” 고등학생들의 처절한 항쟁은 광주 시민들의 폭발적인 참가를 이끌어 냈다. 정부는 “청소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무기를 반납하고 귀가하라”고 위협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게 총을 주세요, 나도 싸울 수 있어요” 하고 광주 시민군에 자원했다.

1987년 민주화항쟁 때도 고등학생들은

이 투쟁에 참가했다.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두발자유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폐지, 학생회 직선제를 요구하며 저항했다. 이런 투쟁은 이후 전교조 운동의 자구제가 되기도 했다.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급진화한 청소년들의 일부는 사회를 체계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급진적 변혁 이론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그들 중 일부는 지금도 한국 사회 진보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가 됐다.

21세기 들어서도 청소년들의 저항은 계속됐다. 2002년 효순이·미선이 압사에 항의하는 촛불시위의 배경에는 의정부 여중생들의 행동이 큰 구실을 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 항의하는 반전 운동에서도 청소년들은 중요한 일부였다.

지금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소외와 억압을 뚫고 저항에 나섰다. 이제 노동자들이 대대적인 행동으로 화답할 때다.

된 학생들의 반란

제의 의의를 연구하는 위원회까지 다양했다. 여러 공간·집기 들의 분배를 담당하는 위원회도 구성돼, 여러 위원회들이 사무실로 쓸 공간과 집기를 배분해 주기도 했다.

어떤 대강당은 간이식당이 됐고, 어떤 대강당은 탁아소가 됐다. 학생들은 응급치료소와 숙소를 만들고, 청소당번도 정해 순서대로 청소를 했다.

1968년 5월 당시 프랑스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던 스무 살 미만의 청소년들도 대학생들처럼 중고생 행동위원회를 구성했다.

동맹 휴업

중고생들은 24시간 동맹휴업을 하고 시위에 참가했다. 일부 교사들이 교실 문을 잠그고 열세 살 학생들을 학교에 가두려고도 했지만, 그들은 학교를 점거하기까지 했다. 그것도 학부모와 함께!

대학생들은 소르본에서 가까운 오데옹 극장도 점거했다. 이 극장에서는 매일 7천여 명이 모여 대규모 토론을 벌였다. 라캉 지구에 사는 노동자들은 영화나 연극을 보러 극장에 가듯, 운동을 점거하기 위해 오데옹 극장에 갔다.

학생들은 프랑스의 거의 모든 대학을 점거했고, 학생들의 용기와 기지는 곳곳에서 빛났다. 바리케이드를 건설하고, 시위 부상자들을 돌보고, 붉은 기가 달린 오토바이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 학생들은 공장으로 찾아가 노동자들에게 연대와 파업을 호소하고, 파업 노동자들과 진지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학생과 노동자 모두 “드꿀은 물러나라”고 외쳤다. 요구는 다양했지만, 이들의 분노는 드꿀 정부에 대한 반대로 모아졌다.

학생들의 반란과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대학 평준화와 대학 운영 학생 참가를 약속했다. 학생들의 저항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처럼 단호하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노동자들은 1천 2백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으로 드꿀 우파 정권을 버랑 끝으로 내몰 수 있었다.

반(反)이명박 시위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한국의 청소년·학생 들도 40년 전 68 반란 때 프랑스 청소년·학생 들과 같은 구실을 할 수 있다.

백은진

이명박의 미친美親 전쟁 지원

김광일

우리가 저지해야 할 이명박의 미친 정책 중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전쟁 지원 정책이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은 조지 부시에게 광우병 쇠고기 수입 뿐 아니라, “대테러국제연대”도 약속했다. 그래서 이명박은 돌아오자마자 미국 경찰 훈련대를 도와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지원하기 위한 아프가니스탄

‘경찰’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대변인은 “카불에 있는 한국의 민간시설을 파괴하고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납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명박의 ‘테러와의 전쟁’ 지원이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국민 생명을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의 ‘테러와의 전쟁’ 지원은 이라크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은 지난해 10월 대선 후보 시절 일찌감치 “자이툰 부대가 기름밭 위에 있다” 하고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을 노골적으로 찬성했다. 이명박 당선 직후 한나라당은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을 주도했다.

이미 이라크 파병 때문에 2003년 오무전기 노동자 김만수·곽경해 씨와 2004년 김선일씨, 2007년 오종수 중위가 이라크에서 사망했다.

한국군은 이라크뿐 아니라 레바논에도 파병돼 있다. 3백60여 명의 특전사 부대가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한국을 방문했던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레바논 파병 UN군의 임무는 헤즈볼라를 무장해제하고 레바논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은 이런 점에서 한국군의 파견을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06년 8월 헤즈볼라와 레바논인들의 저항은 이스라엘의 침공을 격퇴시켰다. 당시 이스라

엘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레바논 민간인과 어린이들까지 학살하며 중동의 중요한 반제국주의 저항 세력인 헤즈볼라를 패배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패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 민중 지배와 억압을 돕는 구실을 하고 있다.

상설파병부대

이라크·아프가니스탄·레바논 파병은 모두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 파병 정책 강화의 핵심이 바로 상설파병부대 창설 추진이다. 국회 동의 없이 사후 통보만으로도 파병할 수 있는 상설파병부대를 창설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한국군을 더 신속하게 멋대로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UN 평화유지군 활동 강화를 상설파병부대 창설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UN을 통제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제국주의 열강들이다. 이명박 정부가 UN 평화유지군의 파병 첫 무대role 목표를 삼고 있는 수단 다르푸르의 경우에도 외국 군대의 개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UN의 역할과 UN 평화유지군에 관한 더 자세한 글들은〈맛볼〉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제국주의 전쟁에 신속하게 끼어들어 먹고물을 얻어 보려는 것일 뿐이다.

미친 소 수입이 거센 저항에 부딪혔듯이 이명박 정부의 파병과 전쟁 지원 정책 또한 순탄치 않을 것이다. 조지 부시가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미친 전쟁 지원에도 반대해 싸워야 한다.

전쟁광이 레바논을 위협하고 있다

김용욱

지난주 레바논에서 반정부 세력이 통제한 승리를 거뒀다.

발단은 레바논 친미 정부의 공격이었다. 물가 앙등 때문에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자 정부는 각목과 총으로 무장한 깡패들을 동원해 공격했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 헤즈볼라의 통신 장비를 해체하려 했다.

정부의 막가파식 공격에 맞서 헤즈볼라는 베이루트(레바논의 수도) 서부를 장악했다. 일부 수니파 조직을 포함해 다른 정파의 조직들도 헤즈볼라를 지지하고 나섰다.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헤즈볼라를 제압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헤즈볼라와 반정부 세력이 통제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당연히 제국주의자들은 경계심을 드

러냈다. 5월 13일 부시는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벌이고 있는 짓을 보라”고 말했다고, 군사 작전 가능성을 묻자 “항상 그런 옵션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스라엘 부총리와 전 참모총장도 전쟁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동 지배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당장 공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레바논의 반제국주의 세력들을 영원히 가만 놔둘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레바논에는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UN군 1만 3천여 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언제라도 레바논의 반제국주의 세력을 공격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군 동맹부대 3백60명도 UN군으로 파병돼 있다. 미국 정부가 무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 레바논 파병 부대는 즉각 철군해야 한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도울 이유는 없다.

68반란 40주년과 오늘날의 교훈

1968년 5월, 프랑스에서는 1천2백만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벌어졌다. 드골 정권을 버랑 끝으로 내몰았던 노동자들의 이 투쟁이 다이너마이트라면, 투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학생들의 반란이었다.

당시에 적어도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해야 했다. 명문학교인 고등사범(ENSA)과는 달리 일반 대학의 학생들은 졸업 후 안정된 취업도 보장받기 어려웠다.

특히 투쟁의 발단이 됐던 파리 교외의 낭테르 대학은 빈곤한 지역에 급히 부설하게 세워진 대학이었다. 도서관과 실험실이 늘 학생들로 꽉 차고, 정식 교수와 강의실도 부족한 상태여서 학생 75퍼센트가 교육과정을 제때 마치지 못할 정도였다.

점거

1960년대 초부터 프랑스 정부가 벌이는 알제리 전쟁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베트남전 반대 운동은 이보다 더 광범했다. 1968년, 대학생 8명이 미국의 베트남 침공에 항의해 대표적인 미국계 기업인 아

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파리 사무실을 습격했다가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는 낭테르 대학의 학생들이 대학 본부를 점거했다.

낭테르 대학 총장은 휴교령을 내렸고, 이 조치에 분노한 학생들은 거리로 나왔다. 낭테르 대학 학생들은 소르본 대학 학생들과 연대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 대열을 폭력으로 진압했고 수백 명의 학생들을 체포했다. 대학교수연합은 학생들의 투쟁을 옹호했고, 파업에 돌입했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 파리 인구의 80퍼센트가 학생들의 요구 — 학교 시설 증설, 여학생 기숙사에 남학생 방문 허용, 대학 운영에 학생 참가 — 를 지지했다.

교육부 장관은 이 파업을 “불법”이라고 선언했고, 체포 학생들을 투옥시키거나 벌금형에 처했다. 그러나 저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학생들은 소르본 대학과 상시에 부속학교도 점거했다. 노동자들을 포함해 토론에 참가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학을 개방했고, 그들은 그 곳에서 어떠한 문제든 토론할 수 있었다.

대형 강당에서 열린 소르본 점거 총회에는 매일 밤 5천 명 이상이 참가했고, 강당

은 터질 듯했다. 모든 사람들은 발언을 할 수 있었고, 발언 시간은 최대 3분이었다. 수많은 학생들이 발언을 하기 위해 줄을 섰다.

수많은 ‘실행위원회’들도 등장했다. ‘점

거대책위원회’, ‘언론위원회’, ‘선전위원회’, ‘학생-노동자 연락위원회’, ‘외국인이 주] 학생 차별 폐지 위원회’ 등이 구성됐다.

경찰의 폭력 행위에 대한 기록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위원회부터 자율적 시험 체

1968년 5월 학생 시위

미친 소 수입 저지

노동계급이 열쇠를 쥐고 있다

한수영

이명박의 광우병·민영화·'대국민 마루타' 정책은 부시·재벌·조중동 같은 소수 지배자들에게만 이익이 된다. 평범한 다수 대중에게는 큰 피해와 재앙만 준다. 흔히 지배자들은 '국익'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진실—계급으로 나뉜 사회—을 은폐한다. 또 지배자들은 틈만 나면 정규직 노동자를 '노동귀족', '절발통'이라며 특권층처럼 묘사해 피억압 대중과 노동자들을 이간질시켜 왔다.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국민의 발을 묶는 파업"이라며 매도해 왔다. 대다수 조합원들과 상관없는 일부 노조 상층 간부층의 비리를 찾아내 노동운동 전체를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이간질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니다.

광우병 쇠고기 하역과 수송을 거부하고 나선 운수노조 웹사이트에는 "감동받아 눈물왈라", "킹왕짱! 간지작렬!", "사랑합니다" 등 운수노조 예찬론이 무려 수천 개나 쏟아졌다. 이명박 미니홈피는 항의 폭주로 폐쇄됐는데 운수노조는 지지 폭주로 다운됐다.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와 한미 FTA 반대 파업으로 못매를 맞았던 금속노조가 올해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저지 투쟁을 선언하자 "힘 있는 금속노조가 싸워 주니 든든하다"며 지지글이 쇄도하고 있다.

평상시에 운수노동자들이 무엇을 운반하는지, 금속노동자들이 어떤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 내는지 관심 가지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꼭 필요하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공기' 같은 존재다. '공기' 없이 살 수 없듯 공장, 사무실, 부두, 항만, 공항, 병원, 학교, 백화점 등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멈추면 이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

지배계급은 노동자들을 쥐어 짜내 얻은 이윤을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 쏟아 붓거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쓴다. 시장의 존재

와 기업 간·국가 간 경쟁이 노동계급을 더 착취하게끔 만든다.

기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해 착취하지 않으면 공장이 아무리 크고 원자재가 쌓여있어도 이윤을 뽑아낼 수 없다.

이처럼 이윤의 원천이 착취된 노동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고 고서는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노동계급이 이윤 체제를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공기

노동계급의 잠재된 힘은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더 강력해져 왔다.

한국만 하더라도 삼성·현대·LG 등 몇몇 기업이 국내생산의 상당량을 차지한다. 노동자들이 더 큰 기업에서 더 많은 동료를 고용할수록 투쟁의 파괴력도 그만큼 커졌다. 노동계급은 대규모 작업장에서 분업과 협업에 기초한 생산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집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받는다.

때문에 지배자들이 현대차·기아차 노동자 파업을 맹렬히 비난하면서도 막대한 손실이 두려워 파업을 앞두고 양보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2003년 5월 물류를 마비시킨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파업은 막강한 힘으로 경유가 인하와 노동자 지위 인정 등 핵심 요구를 쟁취하고 정부를 주저앉혔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치적 요구를 쟁취하는 데도 빛을 발한다. 2006년 프랑스에서는 최초고용계약법—26세 미만의 청년들을 고용할 경우 2년 안에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만든 법—에 맞선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투쟁에 연대해 조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마침내 정부를 굴복시켰다.

한국에서도 87년 6월 민주화 항쟁에 '네티아 부대' 등 노동자들의 대대적 참가는 군부독재를 물려서게 만들었고, 이어진 7~9월 노동자 대투쟁은 쿠데타 등을 통한 군부독재 부활 시도를 꺾고 무게 만들었다.

따라서 광우병 쇠고기 저지라는 정치적 요구는 노동계급의 투쟁과 결합될 때 쟁취할 수 있다. 또,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물가에 맞서서 임금 인상과 고용안정 등을 내건 노동자들의 정당한 경제적 요구와 투쟁도 지지해야 한다.

모든 부문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와 전 사회적 요구를 결합시켜 다 함께 투쟁에 나설 때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보다 강도 높고 조직적인 투쟁에 돌입"하기로 한 것은 기쁜 일이다. 민주노총 이석형 위원장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감당할 수 없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운수노동자들이 물류를 멈추고, 교사 노동자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금속노동자들이 공장을 멈출 때, 막나가는 이명박 불도저와 그의 정신 나간 정책들도 멈춰 설 수 있다.



물류를 멈춰 세우는 바퀴는 화물운송 노동자들

금속노동자가 앞장서자!

김우영(기아차 노동자, 금속노조 중앙위원)

운수노조가 미국산 쇠고기 운송거부를 천명하고 투쟁에 나서자 국민적 지지가 폭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역시 30차 중앙집행위에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무효화에 적극 나서기로 결정하고 노조 중앙과 지부, 지회까지 릴레이 성명서 발표, 공장 안팎에 현수막 게시, 조합원에게 적극 홍보, 수도권지부와 사무처는 서울 촛불집회에 적극 참가하고 지역별로 촛불집회에 적극 참가, 인터넷 '이명박 탄핵'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 등을 결정했다. 이런 결정 사항들은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조직돼야 하지만, 이런 결정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지난해 금속노조는 한미FTA 저지를 위해 산별 파업을 성사시킨 훌륭한 경험이 있다. 한미FTA 저지 파업 당시 노무현 정부와 조중동의 지독한 마녀사냥 때문에 지도부 전체가 구속되는 탄압을 받았지만 그 투쟁이 지금의 촛불 집회에 작은 밑거름이 됐을 것이다. 바로 지금 이명박 정부와 지배자들이 위기에 직면해 허둥대고 있을 때, 운수노조처럼 금속노조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신자유주의 개악들에 반대해 파업 투쟁에 나선다면 전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금속노조는 올 입단협 요구조건과 대정부 요구안(한미·한EU FTA 중단, 비정규직·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국민연금 개악 반대, 대학 등록금 동결, 이라크 파병군 즉각 철군)을 확정하고 중앙교섭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완성차 4사를 비롯한 핵심 기업주들이 교섭을 거부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위기에 휘청거리고 있는 지금,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적기가 다가왔다.

금속노동자들의 요구와 광우병 쇠고기, 의료보험 민영화, 미친 교육 정책 등에 대한 반대를 함께 내걸고 파업에 나선다면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의 숨통을 조일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프랑스의 투쟁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청년·학생들이 최초고용계약법에 맞서 거리로 뛰어나와 동맹휴교를 하고 이 투쟁이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과 어우러져 결국 우파 정부를 굴복시키는 승리를 만들어 냈다. 지금부터 금속노조가 앞장서서 파업 시기를 앞당기고 산업거부와 간부파업부터 조직하면서 이명박 반대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청소년 촛불시위 참가

진짜 배후는 누구인가?

송학혁
중학교 교사, 전교조 서울지부 공립중등관악동작지회장

지난 5월 7일 전국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 공정택이 '괴담'을 늘어놓았다. 6월 여의도에 많은 학생이 모인 이유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이란 다.

여의도에 학생이 많았던 이유는 단순히 여의도가 그가 지목한 지역에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청계천이라든 서울 전 지역에서 고무 갈 것이며, 4·19 묘지에서 한다면 북부 학생들이 많이 갔을 것이다.

교육청의 판로들도 한때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학생들의 생각과 정서를 어찌 이리도 못 읽을 수 있을까. 지금 학생들은 이성에 의한 냉철한 판단의 산물로 무척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는 공공연히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D사 교과서 31쪽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e President?"(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소통 중심 수업에서는 이런 질문이 학생 개개인에게 던져진다. 그런데 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온 모범 답안 "I think he's doing a good job"(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으로 답하지 않았다. 그들이 아는 부정적 현용사를 모두 동원해 답했고 심지어 욕설까지 하는 학생이 있었다. 나는 오히려 대통령도 인격이 있는 사람인데 함부로 말하면 뭘쓰다고 꾸짖어 줬다. 이것이 전교조 교사의 수업이다.

"전교조가 심한" 관악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본 인도 5월 9일에서야 처음 촛불문화제를 구경했다. 그렇다면 촛불의 진정한 '배후'는 누구인가? 무엇이 불특정 다수의 학생으로 하여금 촛불을 들고 시내에 나오게 했는가. 살인적인 임시 경쟁교육으로 책 한 권 읽기 힘든 학생들이지만, 그들은 탄탄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순수하고 정의롭다. 어른들이 비겁할 때 4·19 민주혁명으로, 미선이·효순이 한 풀기로 당당히 나선 대한민국 학생들의 후예답게 자기의 목소리를 다시 내고 있다.

그들의 항의 내용은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항의요, 또 하

나는 학생의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공교육 시장화와 잔인한 경쟁 교육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한 항의다. 한마디로 '미친 소, 미친 교육'에 대한 정당한 항변인 것이다.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소위 '학교자율화' 조치라는 교육쿠데타를 일으켰다. 학원이 학교에서 영업하고, 사설 모의고사가 일상화되고, 0교시와 심야보충이 부활하고, 명문고가 부활하고, 영어가 증추고, 학교는 줄 세우고, 우열반으로 갈라치고,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규제도 없앤다.

학생 평가, 학교 평가, 교원 평가로 경쟁을 통해 모두를 한 줄로 세운다. 시장의 논리, 적자생존의 원칙으로 만든 과자들을 '종합선물세트'로 만들어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내 놓았다. 뜯어보니 대부분 과거에 뺏던 썩은 과자들이요, 어떤 것은 새로 개발된 불량식품이다. 이거 먹다간 전 국민이 '광교병(狂敎病)'에 걸릴 참이다.

광고병

'학교자율화'는 곧 학교시장화다. 공교육에 시장이 어울리는가?

지금의 교육 정책에 반대한다고 이젠 정권의 교육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이 참에 우리 교육의 새 판을 내놓자. 임시 폐지·대학 평준화의 청사진을 내놓고 최소한 복원법의 교육이라도 조금씩 모방해 보자. 시험중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틀린 답을 지적해 주고 학생끼리 서로 문제풀이를 도와주는 것이 부정행위가 아닌 권장사항이 되는 학교를 꿈꾸자. '어린쥐' 교육 말고 굴처럼 상냥한 인간 중심 교육으로 나아가자.

오늘날 청소년은 죽을 맛이다. 대한민국 민중도 죽을 맛이다. 이 비극을 딛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먼저 나선 우리 청소년을 보면 '청춘어람'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교육청은 장학사, 생활지도부 교사,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를 동원해 촛불 끄기에 나서기 전에 학생들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교육청 공문에 의하면 '심야 촛불 집회'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자 한다. 촛불문화제와 학원 중 어느 것이 더 늦은 심야에 끝나던가? 학교와 학원의 위험한 '심야 영업'의 배후에는 누가 있던가? 진정 학생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보호하는 길은 촛불 끄기인가, 촛불 켜기인가?

촛불시위 참가자들의 목소리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전단지도 뿜고 학원에서도 애들한테 나가자 그러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수업시간에 [영상도] 틀어서 보여 주고 그랬어요. 놀이문화가 부족해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이가 없어서 미칠 것 같아요."

—영파교 2학년 두 여학생

"정부 해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격분을 해서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100분토론', 1차 기자회견, 2차 기자회견, 청문회 쪽 지켜보면서 정부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느꼈어요.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주부 이연정

"의료는 국가가 당연히 처리해 줘야 할 복지인

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이익을 위한 집단인 기업에 팔아넘기겠다는 건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말이지. 이명박 정부, 가증스럽고 건방진니다."

—서울 거주 고3 김지인

"4인가족 먹거리 조금 사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월급은 안 오르고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지, 곧 장가도 가야 되는데 1억 하던 집을 3억으로 올려 놓고 ... 그 생각하면 자다가도 밤뽕발떡 일어나요. 전 경악스럽게도 한나라당 지지했고 이명박 뽑았어요. 지금이라도 이명박이 탄핵됐음 좋겠어요."

—인천 거주 20대 직장인 이명남

"저희 부모님도 이명박이 잘할 거라면서 뽐으

셨는데 이런 걸 원하는지는 모르셨어요. 쇠고기는 완전 아니라고 집회 나가라고 하셨어요. 이명박 아저씨, 당신 진짜 대통령 하면 안 돼."

—파주 금촌초등학교와 금촌중학교에 다니는 자매

"제가 서민층이니까 수도 민영화가 되면 수도 값을 올리고 서민들은 굶어 죽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무죄 판결을 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벌금을 내지도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러는 게 대한민국의 옛 값은 현실이에요."

—부천 시온고등학교 2학년 김성현

"교육 문제도 쓰레기입니다. 두발 시위했다고 징계 먹이고 ... 너무 열 받아서 못 참겠어요. 놀 때도 쉬는 날도 석가탄신일까지 공부시키고 있어요."

—수원역 촛불시위에서, 고3 여학생들



전국으로 번져가는 촛불

부산

5월 3일 부산 서면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한 촛불집회 이후 경찰과 교육청 등이 온갖 협박과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약조전 속에서도 서면에서는 매일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14일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서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광우병 쇠고기 위험성을 선전했고, 경찰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1천5백여 명의 청소년, 대학생, 노동자들이 촛불을 들고 서면으로 모였다. 한 고등학생은 "경찰이 사진을 찍어 학교에 보냈다. 그래서 교장실에 불려 갔고, 부모님이 걱정이 많다. 그러나 이것에 주눅들 수 없다"고 말했다. 살인

적인 등록금 때문에 장기 휴학중인 한 대학생은 "내 휴대전화에 있는 1백50여 명에게 매일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자는 전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

인천에서도 수백 명이 모여 계속 촛불을 밝히고 있다. 지역의 여러 단체들을 모아 '광우병 대책위'도 구성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청계광장에 모인 시민들처럼 수많은 촛불을 한 데 들자"며 등록금 인상 반대를 위한 1만 명의 촛불시위로 준비하고 있다. 이미 수천 명의 학생들이 19일 열리는 이 시위에 참가하겠다고 서명했다. 이

학생들은 대학 담장을 넘어 거리 촛불시위에 도 참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

수원

5월 6일부터 수원으로 옮겨 불은 촛불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타오르고 있다. 수원역 광장에서 적게는 50여 명에서 많게는 1백50여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미친 소를 청와대로!"를 외쳤다.

지난해 말부터 20여 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우병위협 미국산쇠고기 수원감시단'을 구성해 수원에서 활동해 왔다.

14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집중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고, 시흥, 화성, 안산에서도 14일에 촛불집회가 열릴 계획이다. 인근 지역 노동조합들도 조합원들에게 촛불집회 참석을 독려

하기로 했다.

춘천

강원 지역에서도 촛불문화제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춘천 촛불문화제에서 한 주부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이명박 탄핵 서명 등 서명해야 할 것이 쌓여 있다. 빨리 이명박을 끌어내려야겠다"고 주장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 여고생은 "지난번 촛불문화제 참석했다가 교장선생님한테 불려 가 야단 맞았다. 그러나 내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참가했다"고 발언해 환호를 받았다. 영월과 강릉에서도 촛불문화제가 계속되고 있다.

5월 8일에는 21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들이 참여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춘천대체회'가 결정됐다.

빡빡한 학사 일정과 숨 막히는 경쟁

“정신없이 살아도 어느새 뒤흔쳐져 있어요”

안형우

“그래도 대학에 가면 자유가 있지 않나요?” 중고등학생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이제 그런 것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새벽같이 시흥 집에서 출발하면 8시반에 학교에 도착해요. 낮 1시까지 수업을 들은 후 15분 만에 밥을 먹고 3시까지 알바 하러 학원에 출근해야 하죠. 밤 11시까지 강의를 하고 나서 집에 오면 12시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죠. 저는 여섯 과목을 듣는데 3월에만 발표를 2개 했어요. 4월에 레포트 2개를 냈고, 일주일 후까지 레포트를 4개 더 내야 해요. 아직 발표가 3개 더 남았고요.” 연세대 3학년인 이재빈 씨의 생활이다.

‘88만 원 세대’ 대학생들은 이제 낭만은커녕 방황할 시간조차 없다. 빡빡한 학사 일정과 입학부터 시작되는 살인적인 경쟁은 등록금, 실업난과 함께 학생들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다.

경쟁 강화는 대학의 기업화와 관계 있다. 노무현은 “대학은 산업”이라며 이를 추진했고, 이명박은 아예 기업이 원하는 바에 맞춘 대학 교육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영어 강의 의무화 · 상대평가제

‘글로벌 경영’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고려대의 경우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요자 중심 교육을 위한 기업 · 대학 공동 포럼’을 열어 기업들로부터 대학 커리큘럼에 대한 조언을 받고 있다. 대학의 “수요자”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대학은 점점 ‘기업 맞춤형 교육’ 위주로 변해 가고 있다.

고려대는 ‘기업 · 대학 공동 포럼’에서 삼성의 요청을 받아 모든 학생이 한자 인종 2급을 파악만 졸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수강 학생이 21명 이상인 모든 수업이 상대평가가 됐고, 전체 강의의 34퍼센트가 영어로 하는 강의가 됐다. 모든 학생이 다섯 과목을 영어로 들어야 졸업할 수 있다. 졸업을 위해서는 6백50~8백50점이 넘는 토익 점수를 따라야 한다.

각 대학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대표적 수단으로 각광받는 영어 강의 의무화는 특히 조기유학 · 어학연수 등을 하지 못한 ‘국내파’ 학생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

“영어 강의 때문에 룸메이트는 매일 밤을 샜어요. 숙제도 너무 많고, 그런데도 워낙 [외국에] 살다 온 사람이 많아서 학점은 잘 안 나왔어요.” 고려대 2학년인 김민정 씨의 말이다.

취업, 토익 · 영어 강의 의무화 등으로 대학생들의 월 평균 영어 사교육비는 31만 원이나 된다. 알바로 이 돈을 충당하는 학생들도 43.9퍼센트나 됐다.(<위클리조선>1994호)

졸업 요건이나 학과 선택 요건에 토익 점수가 포함된 것도 부담을 늘린다.

“영어 놓은 지 5년이 됐는데 졸업 때문에 토익을 봤어요. 졸업 제한 점수보다

1백 점이 모자랐어요. 순전히 졸업 때문에 토익 학원을 다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고려대 4학년인 최혜미 씨의 말이다.

성균관대 4학년인 조승수 씨가 전하는 상황은 더 심하다. “성균관대 1학년인 학부생이 2학년 때 경영학과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토익 8백50점을 넘겨야 해요. 1학년 때부터 도서관에서 토익 책을 끼고 살게 되는 거죠.”

이런 부담을 더욱 파괴적으로 만드는 것은 상대평가제다. 상대평가제는 각 학점별로 학생 수를 정해놓고 일렬로 줄 세우는 제도다. 고려대 4학년인 김종희 씨는 “상대평가여서 학생들이 기를 쓰고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 기준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레포트도 덩달아 많아지는 거죠. 결국 과제가 강의를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를 자체를 위한 것이 돼 버려요. 능수처럼 말이지요” 하고 토로했다.

계급 장벽

같은 4학년인 한 학생은 “상대평가니까 친구들끼리도 경쟁의식이 심해요.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노트 빌려달라고 하니깐 ‘나는 원래 노트 안 빌려줘’하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해는 가면서도 좀 서운했죠. 이제는 그냥 노트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하고 말한다.

‘88만 원 세대’ 대학생들의 희망 찾기

대학의 신자유주의 ‘개혁’ 칼바람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더 시리다.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알바를 하는 학생들은 영어 강의와 학점에서 뒤흔쳐진다. 토익, 한자인종 같은 졸업 요건을 채우려면 또다시 알바를 해야 하고 졸업이 늦어진다. 그러다가 취업문에 서면 이미 저만치 뒤흔쳐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우선 등록금 부담을 없애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등록금이 연평균 가계소득의 12분의 1(한 학기 1백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발의한 상태다. 이것이 조속히 도입돼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핀란드나 덴마크처럼 무상교육을 쟁취해야 한다.

진정한 학문 탐구를 위해서는 ‘기업 맞춤형 교육’이 사라져야 한다. 대학은 자유로운 학문 탐구의 장이지 ‘신입 사원 생산지’가 아니다. 강제 영어 강의와 강제 토익 등은 사라져야 하고 영어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내실 있는 영어 강의를 많이 개설해야 한다.

내실 있는 학문 탐구를 위해서는 상대평가가 맨 먼저 사라져야 한다. 대신 정규교수를 대폭 확충해서 강의당 학생 수를 확 줄여야 한다.

1968년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수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종종 한국에 비해 훨씬 나은 교육 환경으로 묘사되는 프랑스의 교육제도도 1968년의 엄청난 대중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다. 학생들이 시작한 투쟁이 전국적으로 1천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총파업으로 번졌다. 그 결과 프랑스는 대학 서열화가 크게 완화됐다. 현재 프랑스의 대학 등록금은 15만~30만 원 수준이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정부의 장학금을 받는다.

우리도 희망은 있다. 2005년 고려대에

대학 도서관의 숨 막히는 풍경

더구나 이런 경쟁 속에 뒤흔쳐지는 것은 결국 돈 없는 학생들이다.

“생활비를 대려고 매달 평균 과외를 2~3개씩 하다 보면 자기 전 새벽 3시까지 과제랑 레포트를 하고 다음날 내는 식이에요. 과외 안 하고 학원 다니고 쉬고 자기관리 하는 애들은 아침 일찍 와서 푹 바로 들을 수 있겠지만, 두 번 과외 뛰고 밤에 과제하고 아침에 와서 제정신으로 수업 듣기란 참 힘든 일이에요.”

“기업에 원서 낼 때 보면 평균 평점 3.7~3.8점 정도로 다 비슷해요. 결국 차이가 나는 것은 자격증, 시험, 어학연수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죄다 돈이거든요. 결국 돈에서 갈리는 거죠.”

서 삼성 회장 이근희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한 것은 대학의 기업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줬지만 많은 고려대 학생들은 이에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후 고려대는 7명에게 보복성 출교 처분(입학 기록조차 삭제하는 최고 징계)을 내렸다.

그러나 이근희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학생들을 출교시킨 총장 어윤대는 학내 반발을 사 재임에 실패했다. 그는 교수들의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복학을 위한 천막농성과 수십 개 시민 · 사회 · 학생 단체들의 광범한 지지여론이 약 2년 동안 이어졌고, 결국 출교생들은 올해 전원 학교로 돌아왔다. 이것은 대학의 기업화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줬다.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가 이명박 정권을 흔들어 놔듯이, ‘88만 원 세대’의 잠재력은 대학의 기업화와 파괴적 경쟁 강화도 뒤흔들고 막아낼 수 있다.

중국 지진

시장 개혁의 모순을 보여 준 대참사

김용욱

중국 쓰촨성(省) 지진으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적어도 수만 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농촌 지역은 통신이 두절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는지 알 수 없다.

모든 언론들은 중국 정부가 1976년 탕산(唐山) 대지진 당시의 어처구니없는 대처에 비해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이다. 사실, 중국 정부는 정치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개입해야 할 처지다.

지진의 강도가 워낙 강했고 원자바오가 위선적인 ‘서민 총리’ 이미지를 앞세우며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대규모 인명 피해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과연 산샤(三峡) 댐 건설이 이번 지진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산샤 댐 건설 당시 많은 학자들이 지진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국 정부는 대학살을 직접 저지른 당사자인 셈이다.

그러나 설사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일단 중국 정부의 시장 개혁 정책이 희생자를 더 늘린 것은 사실이다.

먼저, 중국 정부는 건축물의 내진 기준처럼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들의 이행 여부를 거의 감독하지 않았다. 이러한 규제는 심지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에서도 지켜지지 않아 이번엔 완전히 주저앉은 건물 중에는 학교가 많았다.

수백 명의 학생이 매몰된 두장옌(都江堰) 싱젠(興建)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는 분노에 차 이렇게 소리쳤다. “봐라, 기둥을 죄다 시멘트가 아니라 모래와 진흙

으로 지었다. 전형적인 ‘두부 건물’[부실 공사를 칭하는 속어] 아니냐!”

‘두부 건물’

중국 정부는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엄청나게 많은 부실공사에 책임이 있다. 중국 정부는 시장 개혁을 시행하면서 지방 사회·복지 재정을 대폭 삭감했고, 쓰촨성처럼 재정이 취약한 지역은 학교와 병원 등을 지을 때 형편없는 자재를 써서 서둘러 시공했다. 여기에

시장 개혁이 낳은 부실 더미에 깔린 희생자

지방 관료와 시공 업자의 공사비 빼돌리기까지 결합돼 건물들은 더 부실해졌다.

눈여겨 볼 점은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중국 정부 대변인이 올림픽 경기장들은 10도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고 1년 전부터 지진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해 왔기 때문에 끄떡없다고 서둘러 강조한 것이다.

행여나 올림픽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한 말이겠지만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일상생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올림픽 경기장을 그렇게 초호화판으로

지을 수 있다면 왜 20세기에만 지진이 8번 발생한 쓰촨 지역에 있는 필수 공공시설인 학교와 병원 등에는 그러지 않았을까?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베이징 올림픽에 총 2백16조 원을 투자했다. 경기장을 짓는 데만 40조 원 이상이 투입됐다. 이 돈이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학교나 병원 등 공공건물에 내진 공사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 돈 가운데 많은 부분이 정부-민간 계약의 형태로 민간 자본에서 나왔다. 자본가들은 올림픽이 끝난 후 경기장들을 고급 쇼펄몰이 들어선 부자와 중간계급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꿈에 부풀어 있다. 당연히 이 자본가들은 쓰촨성처럼 가난한 소수민족들이 많은 지역에 돈을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중국 정부는 쓰촨성을 이른바 ‘서부 대개발 계획’의 근거지로 삼았다. 공식 목적은 시장 논리에 뒤쳐진 지역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그 목표와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음이 드러났다.

중국 정부가 진정으로 사회주의 정부고 원자바오가 ‘서민 총리’라면 그 많은 돈을 부자들의 놀이터를 만드는 데 낭비하지 않고 ‘대개발’의 내실을 기해 재난을 대비하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했을 것이다.

몇몇 중국인들은 인터넷 블로그에 “지진 피해자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낳은 희생자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금 당장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소수일지 몰라도, 중국에서는 매년 이윤지상주의에 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수만 건씩 발생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건국 60년

제국주의의 경비전 이스라엘

[편집자 주] 지난 호에 예고한 대로 이스라엘 건국 역사를 다룬 글을 실는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대안 문제는 <맞불> 웹사이트의 ‘팔레스타인의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읽기 바란다.

이스라엘 국가는 60년 전인 1948년에 1백만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기 고향에서 내쫓는 만행을 저지른 후에 탄생했다. 아랍에서 이 만행은 ‘나크바’[재앙]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인 시온주의는 유럽에서 시작됐다. 시온주의 운동은 19세기 말 유럽에서 유럽 거주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에 대응해 등장했다.

시온주의는 독자적인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면 유대인 억압이 해결될 거라고 주장했다. 시온주의 운동 지도자들은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에 빌붙는 방식으로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 시온주의 지도자들은 시온주의가 유럽 제국주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했다.

시온주의 운동은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정부는 유

대인 이주자들이 영국의 중동 식민지 지배를 도와줄 거라는 시온주의 지도자들의 말을 받아들이 1917년에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

이스라엘은 아랍 민중을 억압한다

가’를 건설한다는 벨푸어 선언을 발표했다.

그 후 20여 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하면서 1930년대 중반에는 거의 45만 명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했다.

만행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장악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한 것은 UN 총회였다. UN 총회는 1947년 11월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와 팔레스타인 국가를 나란히 건설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시온주의 지도자들은 이 결의문을 근거로 자신들이 이미 준비해 왔던 팔레스타인 공격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1947~48년 사이 시온주의 민병대들은 팔레스타인 마을에서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다. 예컨대, 1947년 12월 18일 갈릴리의 키샤스 마을에서 유대인 민병대들은 한밤중에 팔레스타인 거주지에 폭탄을 던져 15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살해했다. 또, 1948년 4월 데이르 야신에서는 9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학살당했다. 그 중

3분의 1 이상이 영아였다.

이런 무자비한 학살 뒤에는 냉혹한 계산이 있었다. 학살자들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런 대량 학살 소식을 듣고 공포에 질려 자기 마을에서 도망치기를 바랐다.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을 선언한 후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학살과 축출 작업은 계속됐다. 5월 22일 탄투라에서 2백3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살해됐다.

미국과 소련 같은 초강대국들이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을 지원했고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 후 그것을 즉각 인정했다.

이런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숫자는 85만 명으로 늘었다. 난민들은 땀 한 톨 없었고, 대량 학살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그들은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서안, 가자 지구의 난민촌에 정착했다. 난민촌의 상황은 끔찍했다.

1948년 ‘재앙’은 당시 중동 지역 정세를 고려해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시온주의 운동을 지원한 이유는 당시 성장하고 있던 중동 민중의 반제국주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국가는 중동에서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 아랍 민중들을 억누르고 물어뜯는 ‘경비전’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만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 사회 포럼

부산지역 사회포럼

미친 소 쓰나미와 한미FTA —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인가

연사: 박건희(‘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정책팀원, 수의사)
일시: 5월 17일(토) 오후 7시 30분
장소: 부산 서면 한국법학원 4층
문의: 018-552-7696, 010-4569-0501

서울 중부 사회포럼

이명박이 가져올 또 다른 재앙 — 의료민영화, 입시지옥화

연사: 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송재혁(중학교 교사, 전교조 서울지부 공립 중등관악동작 지회장)
일시: 5월 21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명동 향린교회 1층 향우실 (지하철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
문의: 010-2519-1987, <http://blog.naver.com/atgjbforum>
참가비: 2천 원

서울 남부 사회포럼

광우병 쇠고기 공포, 조류독감 확산, GMO 수입 — 누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가?

연사: 박건희(‘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정책팀원, 수의사)
일시: 5월 21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교대 인문대 103호 시청각실
문의: 010-8181-4800
참가비: 2천 원

서울 북부 사회포럼

집중 해부 — 학생들을 한자로 만드는 이 명박의 환장할 교육 정책

연사: 하재근(‘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
일시: 5월 29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권실천시민연대 5층 교육장 (4호선 한성대입구역 7번 출구)
문의: 010-9191-1917
참가비: 2천 원

서울 동부 사회포럼

곡물가격 폭동 — 세계는 왜 굶주리는가?

연사: 윤병선(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 《이윤에 굶주린 자들》역자)
일시: 6월 5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 건국대 상하관 109호(지하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도보 15분, 어린이대공원역 3번 출구 도보 5분)
문의: 류민희(010-5581-0506), <http://blog.naver.com/atgeforum>
참가비: 2천 원

대학 맑스주의 포럼

서울교대

《공산당 선언》출간 160주년 — 마르크스주의는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연사: 정병호(‘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5월 29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추후 공지
문의: 010-3163-1673

불편한 진실에 귀 기울이기

어느 조용한 날에 귀 기울여 보세요.

비정규직 정리해고,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절규

미국의 침략 전쟁, 폭격에 멎어가는 심장 소리들

뜨거운 지구, 가난한 사람들 삶터가 물에 잠기는 소리

물·전기·가스·철도 사유화, 대재앙으로 가는 열차 소리

사람보다 이윤이 우선인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건

광우병 쇠고기와 의료보험 민영화,

그리고 무한경쟁의 입시지옥과 비싼 등록금 고지서,

이윤보다 사람이, 경쟁보다 연대가, 전쟁이 아니라 평화, 차별이 아니라 존중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다함께’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아래의 활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다함께’는 민주적 토론과 논쟁에서 출발해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대학과 각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사회 쟁점과 대안을 토론하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교육 문제, 경제위기, 역사, 전쟁, 여성 억압,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 매년 여름에는 50여 개의 다양한 주제로 국내 최대 규모의 진보 토론회인 “맑시즘”을 개최합니다.
- 이 사회의 감춰진 진실을 알리는 신문 <땃물>을 발간하고 판매합니다.

》행동

조중동 같은 기성 언론들은 진실을 은폐하려 합니다. 우리가 흠어진 개인으로 존재한다면 부당한 권력에 맞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회 변화는 대중 행동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다함께’는 대학과 거리에서 사회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대중 행동을 함께 하면서, 자본주의가 낳는 온갖 불의에 맞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합니다.
- 의료 민영화와 교육 시장화, 공공부문 사유화, 한미FTA, 비정규직 차별 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합니다.
- 미국의 침략 전쟁과 파병에 반대합니다.
- 성·성지향·인종에 따른 차별과 시민적·정치적 권리 억압에 반대합니다.

‘다함께’에 가입하세요

활동 소개 및 안내, 회원가입, 후원하기 등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 으로 연락주세요. ‘다함께’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강연회, 거리 가판에서도 얼마든지 물어봐 주세요. 웹사이트 : <http://www.alltogether.or.kr>

후원 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363(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촛불집회가 변화시킨 학생

부산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서명을 받는 가판을 진행하면서 만난 한 학생을 소개하고 싶다. 그는 자신이 지난해 고려대 [소위 '비운동권'] 총학생회 집행부였고 이명박 선거운동에 참가했던 학생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자신이 뽑은 이명박을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고려대 출신인 이명박이 고려대학교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일이라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 학생은 정말로 그날 하루 종일 팻말을 들고 서명 참가를 호소하고, 자유발언에서 이명박을 규탄했다. 이명박 집권 두 달 만에 이렇게 변한 사람들을 우리는 촛불집회에서 자주 만난다. 나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더 개방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

정성희

촛불문화제에 다녀와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기아자동차에서 쏘렌토와 모하비를 생산하는 노동자입니다.

미친 정책들만 쏟아내고 노동자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이 워낙 커서 경기도 화성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촛불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5월 3일 초저녁 광화문에서 처음 보게 된 거대한 촛불의 물결 ... "미친 소 너나 먹어", "이명박을 탄핵하자!" 청소년, 대학생, 시민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앞으로 참 힘들어지



겠구나 생각하며 많이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자신감이 충만해 있습니다. 시민들의 손에 들린 촛불

속에서 저는 이명박 불도저를 폐차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맞불>을 정기구독하며 왜 친미주의자·시장주의자인 이명박에 대해 투쟁해야 하는 지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진실은 승리합니다. 국민들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이려 하고 FTA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넘실대는 아름다운 세상이 곧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기아자동차
노동해방 선봉대원이자
<맞불> 정기구독자

범죄자가 돼 버린 내 친구

얼마 전 내 친구가 흉악범죄를 저질렀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친구들이 자는 집에 불을 질렀다. 이전 누구도 용서 못 할 일이다. 난 내 친구가 저지른 범죄를 방어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내 친구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악마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은 말하고 싶다. 나와 그 친구는 괴롭던 고등학교 시절 함께 음악을 이야기했고, 졸업 후에도 자주 만나 삶에 관해 이야기했었다. 가족과 관계가 많이 틀어지고, 심각한 지병을 얻고, 취업 문제 등이 겹치며 우울증을 앓기 전까진 쾌활하고 늘 긍정적인 친구였다.

우울증을 앓고 난 후에도 우리 사회가 이 친구에게 경쟁과 소외의 압력을 조금만 덜 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친구로서의 책무감과 함께 든다. 내 친구의 일을 겪고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은 흉악범죄의 원인이 사악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는 것이다.

정성희

미국인도 불안해 하는 미국산 쇠고기

최근 조중동은 미국산 쇠고기 공포가 '괴담'에 불과하다며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내가 요새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영어학원에서는 이러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괴담'이 아닌 것 같다.

몇몇 선생님들(대부분 미국인 이거나 재미 동포들)은 한결같이

현재 수입하려는 쇠고기는 미국에서도 안 먹는 것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LA에 거주했다는 한 교포 선생님은 미국 소는 4등급으로 나뉘는데, 미국 사람들도 불안해서 1·2등급만 먹고 웬만하면 쇠고기는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30개월 넘는 소는 4등급이라 사 먹는 사람도 거의 없고,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소는 사람들에게 팔지도 않는다고 한다.

괴담?

그들 말로는 LA한인회장이라고 성명을 낸 사람은 실제 한인을 대표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밀실에서 뽑은 사람에 불과하므로 믿

을 것이 못 된다고 한다.

로이터 통신 기사에 달린 미국인들의 댓글을 봐도, 하나같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한국인들이 불쌍하다는 반응이다. 미국 거주 한인단체들의 성명과 서명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인들도 불안해 하고 리콜 사태가 계속 일어나는 이런 먹거리 식탁에 올리려는 이명박 정부는 탄핵돼야 마땅하다.

백철



소식/보고

2008년 5월 19일(월)까지 지역과 대학, 작업장의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letter@counterfire.or.kr

물류를 멈춰서 미친 소를 막고 세상도 바꾸자

5월 10일, 경유가 인하, 미친소 운송 거부, 운송료 인상 등을 위해 화물운송 노동자 6천여 명이 전국 곳곳에서 부산역으로 모였다.

물가와 경유가는 폭등하는데 노동자들이 받는 운송료는 10년 전과 같아 화물운송 노동자의 30퍼센트가 신용불량자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은 노무현 정부가 약속한 유류 보조금마저 삭감해 버렸다.

한 노동자는 "매일 12시간씩 야간운전을 한다. 아침식사는 라면으로 때우고, 아내는 마트에서 일하는데도, 아이들 학원비도 내지 못하고 빚만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라면 값도 올라 아침도 굶어야 할 판이다" 하고 분노했다. 노동자들을 못살게 구는 이명박이 미친 소 수입까지 하자 조합원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이번 결의대회 하루 동안 5백여



명이 새롭게 화물연대에 가입했고 비조합원들도 투쟁에 나서고 있다.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은 "비조합원, 조합원들이 함께 투쟁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총파업 및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 노동자는 '광우병 쇠

고기 운송 거부'와 '대운하 반대' 등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고 이런 요구안에 대해 한 달 안에 답변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

미친 쇠고기 운송 저지를 외친 운수노조와 화물연대 웹사이트가 수많은 지지글로 다문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미친 소 수입 반대'와 '생존권 사수'를 내건 투쟁은 최대한 앞당겨질 필요가 있다.

박수원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가 결성되다

5월 12일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저지를 위한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대학생 나눔문화, 대학생 다함께 등 주요 학생 단체들과 여러 학생회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앞으로 대학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광범한 운동기구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와 검역주권 회복을 위한 전국 대학생 대책위원회(이하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를 꾸렸다. 이 대책위에는 22개 학생단체와 35개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

회가 가입했다.

앞으로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는 각 대학별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기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신의 소속 학교에서 광우병 쇠고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5월 16일을 대학생 행동의 날로 정하고, 전국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대학생 집회를 갖기로 했다. 서울은 16일 5시 보신각에서 대학생 행동의 날이 열린다.

대책위는 이제 대학에서 운동을 더욱 크게 확산시키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김영익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 02-2271-2395
계좌 번호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5·24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 5월 24일(토) 오후 4시, 장소는 서울 도심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인터뷰

미친 소를 막기 위해 전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편집자 주] 올곧게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만나 현재 상황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물었다.

정부가 거짓말과 퍼주기까지 하면서 쇠고기 협상 타결에 매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미FTA에 목을 맨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를 만나, 한미FTA 비준 분위기를 갖추기 위해 우리 국민 건강권과 검역 주권, 축산 농민의 생존권까지 선물 보따리로 바쳤습니다. 결국 한미FTA에 대한 맹신적 소신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촛불집회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탄압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탄압이나 회유가 있을 때 흔들리고 굴복하면 우리 행보가 중단이 되겠지만, 의연하게 걸어가면 더 큰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진보정치를 실현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르려 욕심을 많이 내선 안 되고, 국민들의 정치의식 향상을 위한 행사와 주장들을 계속 해 나가야 하겠지요.

얼마 전 의원님께서도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열정적인 연설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였나요?

정부를 견제하고 바로잡도록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여당은 항상 행정부 편이나 들고 감싸주거나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리고 야당도 대부분 수박 겉핥기식 거수기 구실로 일관해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 들어 계속해서 이런 부당한 직무유기, 거수기 구실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19일 새벽에 쇠고기 협상 결과를 듣는 순간, 이걸 정부가 정말 대형 사고를 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봤어요.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이렇게 통째로 내줄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에 청문회 하는 것 보셨지요? 한나라당은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회 차원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오는 5월 15일 고시를 강행하고 한미FTA 비준까지 추진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국회에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고요, 위생조건 고시 중지 가처분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5월 13일] 제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체결한 협상이 국민 건강을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무효화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도 전국적으로 시·군 단위까지 모두 나서게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느냐’ 그런 심정과 각오로 모두 다 함께해서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한 사람의 정치인이자 국민으로서 함께하겠습니다.

인터뷰 · 정리 조명훈

탄압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한수영

전국 도처에서 촛불의 바다가 이명박 정부를 삼켜버릴 기세다. 그러자 경찰청장 어청수는 “불법집회”라며 “집회 주최자를 사후 형사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다. ‘고립무원’에 빠진 정부는 탄압으로 이 운동을 짓밟을 수 있으리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노로 타오르는 촛불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탄압을 냈 놓고 지켜본다면 가랑비에 옷 젖듯 운동의 기반을 갉아먹을 수 있다. 지난해 한미FTA 반대 운동 때도 2백여 명이 소환되고 28명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이 최근 강기갑 의원을 표적 수사하는 것도, 5월 17일 동맹휴교의 주동자

를 ‘색출’하고 탄핵 서명 발의자 ‘안단테’ 등 21명의 아이디 수사에 나선 것도, ‘PD수첩’을 상대로 한 정부의 소송도, 교육청이 장학생들을 풀어 시위 참가 학생을 위협하는 것도 우리 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다. 게다가 최근 알리안츠생명 노조위원장이 구속되고 티벳 독립·버마 민주화 활동가인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연행된 것도 사회적 억압을 강화하려는 공격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운수노조가 광우병 쇠고기 운송을 저지하고 나서면 정부는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손배가압류·벌금 등으로 탄압하려 할 것이다. 그러되면 우리는 즉시 운수노조 방어·지원 캠페인도 건설해야 한다. 각종 탄압과 야비한 공격에 대해 우리는 항상 힘을 모아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

전쟁광 · 미친 소 장사꾼 조지 부시가 온다!

김용욱

전 세계인의 적 조지 부시가 7월에 한국을 방문한다.

부시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를 침략한 장본인이고, 이란과 시리아를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침략과 점령으로 이라크에서만 1백20만 명이 죽고, 4백50만 명이 난민이 됐다. 자유무역의 이름 아래 전 세계에 미친 소 수입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하기도 한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 유럽, 중동 등

방문하는 곳마다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 부시의 방문에 항의하는 행동을 벌였다.

한국의 진보진영도 부시 방한 반대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부시가 중동에서 승리한다면 북한을 위협할 여유가 생기게 될 것이다.

또, 부시 방한 반대 행동은 이명박 정부의 미친 전쟁 지원 정책을 많은 한국인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명박은 부시 방한에 맞추어 “21세

기 전략동맹 비전”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것은 전쟁과 학살 동맹을 더 굳건히 하는 선언이 될 것이 틀림없다.

지금 이명박과 부시가 합의한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명박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인 침략 전쟁 지원 정책에 반대하며 부시 방한 반대 투쟁에 참가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반(反)이명박 투쟁이 될 것이다.

부시 방한까지 두 달이 남았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서 이명박과 부시가 짝짝 놀랄 만한 반대 시위를 벌이자.